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Vol. 270

10

2017





남대천 억새밭

COVER STORY



2017 양양연어축제 맨손잡이 체험



양양소식 · 270호

| 발행일 2017년 10월 25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소식

Vol. 270

CONTENTS

희망양양

- 04 테마스토리 양양의 파도, 전국의 서퍼를 부른다.
- 06 야양사람 일할 수 있어 행복해요!
경력단절 여성에게 희망을!
- 08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양양 하조대는 조선시대 시인묵객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

의기양양

- 10 이달의 군정소식
 - 10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다시 정상 궤도
 - 12 물치농특산물 판매장 새로운 사업자 선정, 운영 계획
 - 13 낙산 아쿠아리움 건립
 - 14 진전사지 석탑 주변서 금동보살삼존불입상 출토
 - 15 손양면 오산항~동호해변 해안탐방로 조성
 - 16 강현119안전센터, 남양양C 명칭변경
- 17 양양의 이모저모
- 18 의정소식
 - 18 제22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 19 우리군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진천군의회 연어축제 견학

오감양양

- 20 이장통신 손양면 가평리, 현남면 지경리
- 21 이게 최고자니
가을 환절기 대비 양양 '피도라지 배즙'으로 건강챙기세요!!
- 22 양양에서 데이트 할까요
내 마음에 물든 고운 빛깔이 네 마음도 물들이는 가을로

열린양양

- 24 책이야기 안목 / 이달의 신간
- 25 정보꾸러미 10월 추천 일자리, 양양-제주 운항시간표
- 26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 28 공익광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양양군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jsm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양양의 파도, 전국의 서퍼를 부른다

2017 양양 서핑 페스티벌

뜨거운 여름, 밤낮없이 양양의 바다를 후끈하게 달궜던 서핑의 열기, 그러나 서퍼들의 시즌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좋았다'는 드라마 명대사처럼 서퍼들에게 서핑이란 덥거나 춥거나 흐리거나 비가 오는 것과 상관없다. 파도가 좋았던 10월의 어느 날, 전국의 서퍼들이 양양의 파도를 찾아왔다.





전국 최대 규모 2017 양양 서핑 페스티벌

10월 13일부터 3일간 죽도해변 일원에서 양양 서핑 페스티벌이 올해로 4회째로 열렸다. 서핑대회를 비롯해 공연, 이벤트 행사 등으로 구성된 서핑 페스티벌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서핑 행사로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국내외 서퍼 7백여 명을 비롯해 관람객 등 3천여 명이 참여했다. 양양군서핑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서핑 페스티벌은 연합회가 구성되기 이전 소규모로 시작한 것이 발전하여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서핑대회로 성장했다.

특히 초급부부터 롱보드와 숏보드 오픈, 국제부 등 모두 8개 부문의 경기 규모는 해외에서 열리는 서핑 대회에도 뒤지지 않는 규모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해외 선수들도 대회에 참가해 기량을 펼쳤다.

서핑 성지 '양양' 해양 레포츠와 문화를 동시에 즐기자!

이번 서핑 페스티벌은 전문 서퍼 위주의 대회형식을 탈피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축제형 행사로 육성하기 위해 서핑 초보자와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바다에서는 전문 서퍼들의 대회가 열리는 한편 백사장에는 서핑의 기본기를 배울 수 있는 카버 스케이트보드를 설치해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체험 기회를 제공했으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행사 쓰레기 수거 등 환경인식 변화에도 앞장서는 서핑 문화를 제시했다.

최근 전국의 서핑 인구가 15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서핑이 해양레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양양 간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힘입어 올해 양양군에 다녀간 전국 서퍼들은 7만 명에 가깝다. 전국 서핑 인구의 절반이 수치다. 피서철에는 서핑을 배우려는 입문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저변이 확대되고 있고 전문 서퍼들은 오히려 파도가 좋은 가을부터 계절을 가리지 않고 양양 바다를 찾아오며 서핑 성지의 명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식지 않는 서핑열기, 양양의 동력으로! 양양의 희망찬 미래를 앞당기는 기적소리

전국의 서핑 인구가 해마다 두 배 이상의 빠른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90여개 서핑 관련 업체 중 절반가량이 양양군에 등록돼 있다. 또 올해 양양에 다녀간 서퍼들이 서핑 체험 등에 필요한 강습과 대여료를 비롯해 교통, 숙박, 먹거리, 쇼핑 등에 창출한 지역경제효과는 13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양양군에서는 '서프시티' 브랜딩 사업을 추진하고 서핑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관광인프라를 개발해 전국 최고의 서핑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최근 서핑을 하러 왔다가 양양에 눌러앉아 주소를 이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양양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위해 도시의 젊은이들이 꿈을 꾸다. 서퍼들을 부르는 양양의 파도 소리가 양양의 희망찬 미래를 앞당기는 기적소리로 들린다.



좌로부터 신영옥, 진남일, 김미옥 씨

일할 수 있어 행복해요!

경력단절여성에게 희망을!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의 과정을 거치며 많은 여성들은 경력 단절을 경험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데다 일자리마저 찾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새로운 직업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이들이 있다. 양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후 새일센터)의 직업훈련과정 통해 엄마이자 아내, 그리고 내 일을 가진 당당한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주인공들을 만났다.

내 일이 있어 행복해요.

방과 후 수업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에서 놀이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영옥 씨는 7살, 5살인 두 아이의 어머니이다. 결혼과 함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임신과 출산, 육아에 전념하던 중 우연히 새일센터에서 모집한 동화구연가 과정을 신청했다. 교육 이후 재능기부 방식으로 시작한 동화구연 수업을 통해 입소문이 퍼지자 기관과 학교 등에서 알음알음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자유학기제 등 교육 현장에서 관련한 인력 수요가 많아지면서 현재 누구보다 바쁜 워킹맘으로 살고 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내 일을 한다는 건 엄두도 못 냈지만, 지금은 내 일을 한다는 데 행복감을 느껴요. 결혼하고 나서 엄마나 아내로만 살다가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무산지역 아동센터 전래놀이 교실

제 2의 인생, 친구들이 부러워합니다.



어린이집 구연동화

진남일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내가 제일 부럽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 남편은 은퇴 무렵이고 아이들은 품을 떠날 시기에 놓인 친구들 사이에서 아이들의 동화구연 선생님이로, 노인들을 위한 실버건강지도사로 살아가는 진남일 씨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전래놀이 과정까지 수료하고 추가로 인형극을 배워서 양양뿐만 아니라 고성, 속초, 강릉까지 의뢰가 들어오는 덕분에 요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실버건강지도사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에서 재능기부로 자원봉사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른신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돼 보람도 크다.

“만약 내가 새일센터를 몰랐다면 어땠을까? 그건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만큼 만족도가 높고 제 2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즐겁게 일을 해서 그런지 성격도 밝아지고 웃음도 늘고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보기 좋다고 하고 부러워하죠.”



육아와 꿈, 두 마리 토끼를 잡았어요.

결혼 전부터 설계사무일을 해오던 김미옥 씨는 새일센터의 직업훈련과정을 통해 그동안 미처 몰랐던 적성을 찾았다. 세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며 누구보다 아이들과의 시간이 소중했던 김미옥 씨는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적성을 발견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 오전에는 육아와 가사에 오후에는 자신의 일을 하는 등 시간을 배분해서 쓸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과 소통방식으로 방과 후 수업, 돌봄 교실 등에서 놀이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넘치는 일 때문에 육아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아이들과의 시간도 중요한데 일이 너무 많아서 최근에는 일을 줄이고 있어요. 일반 직장생활을 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하는 일은 제가 원하면 일을 줄일 수 있고, 시간을 활용하기도 좋아서 워킹맘으로 살기에 아주 좋아요.”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했던가. 자신의 일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한 이들은 잃었던 꿈을 되찾았다.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서 행복을 찾은 이들을 응원한다.



행복노인센터 실버건강지도

양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670-2890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하조대 일출

양양 하조대(河趙臺)는 조선시대 시인묵객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

이곳 유래와 정자각 건축연대를 알아보다.

하조대는 현북면 하광정리 산3번지 일대의 암석 해안으로 2009년 12월 9일 명승 제68호로 지정된 곳이다. 조선시대 지리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 1757~1765)의 고적조(古跡條)에 “하조대는 부 남쪽 30 리에 있다. 해안에 닿아있는 작은 산기슭의 험한 곳에 둔대(墩臺)가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조선 초기에 하륜(河崙)과 조준(趙浚)이 풍류를 즐긴 곳인 까닭에 이름 지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정자각은 조선 정종 때 최초로 건립한 후 수차례의 중수를 거듭한바 있으나 퇴락하여 철폐되었다. 일제 강점기인 1940년 현북면에서 기념사업으로 주민들이 팔각정(八角亭)을 건립하였으나 6·25전쟁 때 소실되었다. 그 후 1955년과 1968년 두 차례에 걸쳐 중수하였으며, 현재의 정자는 1998년에 해체복원한 건물이다. 양주읍지 형승조(形勝條)에는 정자각 앞 바위에 ‘하조대(河趙臺)’라 새겨 놓은 글자는 조선 숙종 때 대사헌과 양양부사를 지낸바 있는 이세근(李世瑾)이 각자(刻字)하였다고 전한다.



하조대



시인 묵객(詩人墨客)들의 제영(題詠) 시(詩)는?

- 택당 이식(澤堂李植, 1584~1647)은 동부승지·우참찬 등을 역임했고 다음해에 대사간·대사성(大司成)·좌부승지를 지냈으며, 한 때 인조의 노여움을 사 간성현감으로 좌천되기도 했는데 그의 시는 다음과 같다.

〈河趙臺(하조대)〉

臺名河趙自何年 / 대명하조자하년 / 하조대란 이 이름 시작된 게 언제 인고
 形勝兼將姓氏傳 / 형승겸장성씨전 / 멋진 경치와 더불어서 성씨까지도 전해 오네
 巖巖千尋爭巨浪 / 희희천심쟁거낭 / 엄청난 물결과 맞싸우며 천 길 우뚝 솟은 누대
 灣洄一曲貯深淵 / 만회일곡저심연 / 한 굽이 돌 때마다 깊은 연못 물 고이였네
 草疑砥柱當橫潰 / 초의지주당횡괴 / 격류 속의 지주런가 처음에 눈을 의심타가
 更覺桑田閱變遷 / 갠각상전열변천 / 문득 상전벽해 세월의 변천을 깨달았네
 從古爽鳩遺此樂 / 종고상구유차낙 / 상구씨가 이 즐거움 물려준 뒤로부터
 幾人陳迹逐風煙 / 기인진적축풍연 / 속인의 발길 그 얼마나 이 풍광을 좇았을 꼬

- 명제 윤증(明齋尹拯, 1629~1714)은 학덕이 높아 현종 때 지평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이후로도 우의정 등의 교지를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하여 백의정승이라 불리며, 그의 시는 다음과 같다.

〈河趙臺(하조대)〉

奇峰突兀入波心 / 기봉돌울입파심 / 파도 속으로 불쑥 솟은 기이한 봉우리여
 十里松間冒雨尋 / 십리송간모우심 / 솔 사이 십리 길을 비 맞으며 찾아 왔네
 遊子何知河與趙 / 십리송간모우심 / 나그네는 하륜과 조준을 어찌 알 것인가
 倚巖空腹費莊吟 / 의암공복비장음 / 바위에 기대 부질없이 시 한수 읊었 다오

- 하조대와 관련된 위의 시 외에 양양부사를 지낸 현곡 조위한(趙緯韓, 1567~1649), 심청헌 김세필(十淸軒 金世弼, 1473~1533), 창녕군수 백헌 이경석(白軒 李景奭, 1595~1671), 황해도관찰사, 학주 김홍욱(鶴洲 金弘郁, 1602~1654), 양양부사, 희암 채팽윤(希菴 蔡彭胤, 1669~1731), 저촌 심육(樵村沈鑄, 1685~1753), 대사성, 지퇴당 이정형(知退堂 李廷馨, 1549~1607), 대제학 호음 정사룡(湖陰 鄭士龍, 1491~1570) 등 기라성 같은 명사들이 시를 남겼는데 특별히 택당 이식과 백헌 이경석의 하조대 제영(題詠) 시 두 편이 정자각 내에 편액(扁額)되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글·사진 : 양양문화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다시 ‘정상궤도’

문화재청 조건부 승인으로 문화재 관련 절차는 마무리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및 16개 개별 인허가에 속도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게 됨에 따라 남은 행정절차 이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10월 25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천연기념물분과회의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사유를 재확인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

다며, 허가 처분 시 문화재 훼손 저감 방안을 조건으로 승인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 현상변경 부결 결정을 하자, 우리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6월 15일 인용결정을 받아낸 후 4개월 여 만의 성과다.

문화재청의 현명한 결단 일제히 환영,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를 다짐하는 현수막 거리 곳곳에 걸려

문화재청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전해지자 이른 아침 양양을 출발해 서울 경복궁 고궁박물관 일원에서 하루종일 ‘환경보호’ ‘산양보호’ 등이 적힌 머리띠와 현수막 등을 들어보이며 문화재청의 사업승인을 촉구해 온 300여명의 주민들과 한국제철장애인협회 회원, 재경군민회, 출향인사 등 500여명은 일제히 환호하며 감격스러워했다.

특히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준화)와 양양군의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오한석)는 일제히 문화재청의 조건부 승인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국립공원시범사업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가 설악산을 건강하게 하는 친환경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온 군민이 힘을 모으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립공원 식도 시범사업으로서의 성공적 모델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 친환경 설계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시설로 만들 것

문화재청의 조건부 승인으로 우리군은 10개월여 동안 끌어왔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 하게 돼 그동안 표류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정상궤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또다른 중요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통과에 집중하면서, 그 외 남은 절차를 누수 없이 진행해 국립공원 식도 시범사업으로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는 오는 12월, 보완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마무리한 뒤 백두대간 개발행위, 산지일시사용허가, 국유림사용허가,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 16개 개별 인허가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계획이다.

우리군은 2018년 12월까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방공기업 설립 등 준비를 마친 후, 2019년 1월에 착공해 2020년 말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물치농특산물 판매장 조속히 정상화 추진

행정대집행 후 새로운 사업자 입찰 선정 및 사용 재개예정

물치주차장 공원화사업 및 북양양 IC 연결도로 연말 준공에 맞춰 활성화 기대

강현면 물치주차장에 위치한 물치농특산물 판매장이 수 년 만에 운영을 재개했으나 위탁운영자의 불법 전대행위로 인해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돼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은 오는 연말, 강현면 면소재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물치주차장 공원화사업이 완료되고 북양양IC~7번국도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군은 빠르게 정상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는 방침이다.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은 지난 1998년,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와 판로 확보를 위해 도비 2억원을 포함, 총7억원을 투입해 728㎡ 규모로 강현면 물치리 7-7번지 물치주차장 내에 신축한 후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축협 식당, 횃집 등으로 운영됐으나 경영난과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해 2012년 6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2014년 철거방침 세웠으나, 보수 후 재사용 의견에 따라 5억원의 예산으로 보수공사 추진 전자입찰을 통해 10여개 지역업체가 참여하여 준공

7번 국도변에 위치해있어 시야에 쉽게 들어오음에도 장기간 미 활용되고 방치된 상태가 이어지자 주변환경이 훼손되고 지역 경제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군에서는 철거 방침을 세웠으나 노후시설을 개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일부 의견에 따라 2014년말 도비 2억5천만원과 군비2억5천만원 등 총 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설계결과 총 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옴에 따라 한정된 예산에 맞추기위해 관급자재를 시공사가 설치하는 도급자관급이 아니라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설치하는 관급자관급

으로 설계하여 제경비를 절감, 5억원에 맞추어 설계했으며 관급자재 발주 시 하자보수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고려했다. 이어 2016년 전자입찰을 통해 건축 공사업체를 선정, 사업에 착수했으며 기계·전기·소방·통신·석면처리 등 8개 분야 사업은 각각 지역업체를 활용해 추진, 2016년 7월경 준공했다. 또한 당초 설계에서 누락된 방수, 외벽도색, 배수로 정비, 지하배수시설 등은 추가로 3천만원을 확보해 2016년 말 준공했다.

사용수익허가 후 불법전대 드러나 계약 취소, 11월중 행정대집행 후 새로운 수익자 공모

정비공사와 함께 입찰방식을 통해 후 연간 사용료 30,100천원에 지난 3월부터 1층은 식당과 농산물판매장으로, 2층은 카페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사용수익자가 타인에게 불법 전대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0월 30일까지 원상복구 할 것을 통보했다. 군은 사용수익자가 최종기한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중순 경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절차가 완료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를 통해 새로운 사용수익자를 공모한 뒤 정상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바다와 접해있어 해풍과 파도로 인한 부식과 노후가 급속히 진행되는 데다 A자형 지붕 형태로 소규모 누수가 잦음

에 따라 지속적인 검사, 보수를 통해 건물관리에 만전을 기해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낙산지구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 건립 추진

5천톤 수조에 해양생물 500종, 수목원 부지 선대부 후매각 방식



낙산지구에 서울 코엑스나 63빌딩에서나 볼 수 있었던 대형 아쿠아리움(Aquarium) 시설이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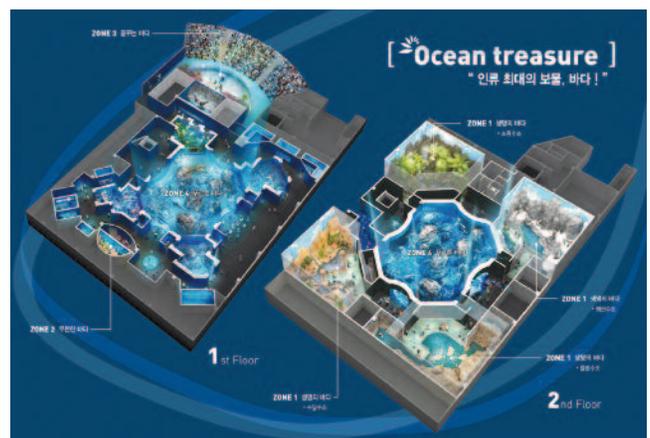
우리군은 다양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강현면 주청리 87번지 일원 공유지 17,267㎡에 민간자본 433억원을 들여 아쿠아리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건립 예정인 아쿠아리움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1,501㎡ 규모로 5천톤 규모의 수족관에 열대바다 등에서 볼 수 있는 500여종, 5만 마리의 해양생물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신비로운 바다 속 생물의 세계를 연출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스쿠버와 수중 공연팀을 활용해 다채로운 이벤트와 스토리가 있는 테마공연을 진행해 차별화된 아쿠아리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공유재산 매수자의 목적사업 이행을 간접적으로 담보받기 위해 선(先)대부 후(後)매각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민간투자자에게 대부 한 후, 건축물이 준공되는 등 목적사업이 진행되면 후에 공유지를 매각하는 것이다.

군은 지난 9월 26일, 공유재산 수의계약 대부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동해월드아쿠아리움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10월 중 우선협상 대상자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설계 및 인허가를 받은 후, 2019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1년 개관할 예정이다.

사업성 검토 결과 연간 방문객수는 70만 명으로 추정됐으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관광객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우리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수학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곤충생태관 등 학습시설과 연계해 가족·단체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함은 물론,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지역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현면 둔전리 진전사지 석탑 주변에서 6세기 금동보살삼존불입상 출토

10월 16일(월) 진전사지 발굴조사 현장에서 공개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에서 금동보살삼존불입상이 출토됐다.

재단법인 국강고고학연구소는 문화재청과 양양군의 허가를 받아 진전사지삼층석탑 주변 발굴조사를 실시하던 중 석탑 북측에서 소형 금동보살삼존불입상을 발견했다.

우리군은 국보 제122호 진전사지삼층석탑 주변 발굴 및 시굴 조사를 통해 사역과 가람배치 등 유적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고, 향후 진전사 정비 복원 시 그 원형을 규명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발굴조사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출토된 금동보살삼존불입상은 광배 상단과 좌대 일부가 없어졌으나, 높이 8.7cm로 전체적인 모습은 양호하다. 출토 당시 육안으로는 청동으로 보였으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기초조사를 하던 중 금동으로 밝혀졌다. 삼존불은 모두 보살상이며, 출토지가 명확한 이 불상은 한국에서 유일한 사례로 평가된다. 중앙 본존불에 보살상, 좌우에 협시보살을 배치하였는데, 본존불에서는 두광과 신광이 모두 양각으로 표현되었다. 보살상 보관(寶冠) 위에 화불이 연꽃 좌대에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본존불과 협시보살 사이의 하단에 인위적인 구멍 2개는 처음 발견되는 사례이다.

광배에는 전체적으로 화염문을 두었고, 손 모양은 다섯 손가락을 가지런히 펴서 손바닥을 밖으로 하여 어깨높이까지 올린 모습이다. 삼존불 모두 보살상의 앞면에서 걸옷은 'X'자로 교차하였다가 좌우로 퍼지는 양식이다.

한편, 이 불상은 6세기인 '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金銅辛卯銘三尊佛立像, 국보 제85호)'의 화불·옷 주름, '금동보살삼존입상(金銅菩薩三尊立像, 국보 제134호)'의 좌대·옷 주름과 유사하며, 세 가닥으로 올라간 보관(寶冠), 'X'자형의 옷 주름, 화불 등으로 미루어 삼국 시대인 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세련된 양식의 불상이다.

좌대에는 음각한 1단의 단판 8엽의 연화문이 관찰되며, 불상과 좌대가 일체형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기법과 도금방법 등은 앞으로 보존처리 과정을 통해 정밀하게 조사하여 밝힐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5년에는 양양군 서면 서림리 선림원지 유적 발굴조사에서 9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불과 청동정병, 와당 등이 출토된 바 있다. 진전사와 선림원지는 통일신라 선불교의 상징적인 유적지로 알려져 있다.



손양면 오산항~동호 해변 해안탐방로 조성 추진

4.5km 구간에 바다 탐방데크 설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활용 양양국제공항, 낙산, 설악산 오색과 연계해 관광활성화

손양면 오산항에서 동호해변까지 해안에 강릉 바다부채길에 버금하는 해안탐방로이 조성될 전망이다.

군은 그동안 낙산도립공원, 군사작전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원화하지 못한 손양면 오산항에서 동호해변에 이르는 4.5km의 해안에 경관 탐방 데크길을 조성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구간은 가지각색의 기암괴석과 울창한 해송, 탁 트인 해안 절경을 가지고 있어 해안경관 탐방로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이번 탐방로 조성계획에 포함된 수산항 봉수대에 오르면 남 쪽으로는 하조대와 남애항, 북쪽으로는 낙산사, 물치항까지 조망이 가능하며, 서쪽에는 설악산을 비롯한 백두대간이 병풍 같이 늘어서 뛰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특히 양양국제공항과도 인접해 있어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용이한 지역으로 관광 상품화할 경우 방문객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총 4.5

km 구간 중 기존에 개설된 탐방로를 제외한 3.5km 구간에 바다경관을 가장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데크길을 조성해 강릉 바다부채길에 버금가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산항 봉수대를 비롯한 주요 관망 포인트에는 쉼터와 전망대, 포토존 등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쉬어가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올해는 제2회 추경을 통해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지역 특성과 정서, 경치를 담은 탐방로 명칭을 공모로 정한 뒤 문화관광자원 개발 국비사업으로 201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우리군은 자연경관을 최대한 지키면서 오산항~동호해변 해안 데크길을 조성해 해양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한편, 탐방객들이 하조대, 낙산, 설악산 오색 등과 연계 관광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양소방서 강현119 안전센터 신축사업 추진

낙산사 등 문화재 화재 및 북양양IC 개통에 따른 교통 및 재난안전 수요 대처

우리군이 강현면 지역의 주민 안전과 급증하는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양양소방서 강현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16년 양양소방서가 준공.개소되면서 양양읍과 주변 지역에 대한 소방안전이 확보되었지만, 강현면의 경우 소방서와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신속하고 광범위한 재난 안전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왔다.

현남면과 현북면 등 양양 남부지역은 각종 재난 발생 시 현북면 잔교리에 위치한 현남현북119안전센터에서 초기대응을 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강현면 지역은 국보급 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낙산사가 위치해 있고, 최근 북양양 IC 개통과 대단위 아파트 및 전원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교통 및 생활안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재난 대비체제 확립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군은 양양군 강현면 24개리 5,000여 주민과 향후 1~2년 내 아파트 등으로 새로이 유입될 인구를 예측,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현면 정암리 561-1번지 일원 군유지 2,314㎡에 강현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한다.

강현119안전센터 신축사업에는 도비 9억 5,000만원, 군비 9억 5,000만원 등 총사업비 19억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800㎡, 지상 2층 규모로 조성이 되며, 소방인력 28명과 펌프, 물탱크, 구급차량 등이 구축될 계획이다.

현재 군은 강원도와 양양소방서 등과 협의를 완료했으며, 올해 안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2018년 말까지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양양소방서 강현119안전센터가 신축되면 강현면 지역 53km²에 대한 산불, 화재, 농업 및 생활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해져 보다 안정적인 정주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담당(670-2749)

동해고속도로 현남 IC, ‘남양양 IC’로 명칭 바뀐다

한국도로공사 명칭변경 통보, 시설물 정비 후 12월 1일부터 공식 변경

동해고속도로 현남 IC가 ‘남양양 IC’로 명칭이 변경된다.

우리군의 경우 지난해 11월 동해고속도로 양양~속초구간 개통에 이어 올해 6월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전면 개통되면서, 현남 IC와 하조대 IC, 양양 IC, 북양양 IC, 서양양 IC 등 5개의 나들목이 개설·운영되고 있다.

이중 현남 IC(나들목)만 인지도가 다소 떨어지는 읍면동 명칭으로 부여되어 있어 고속도로 개통 초기부터 명칭 변경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어 왔다.

이에 군은 주민의견 수렴과 양양군의회 의견 청취, 군정조정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지난해 4월, 나들목 명칭을 ‘남양양 IC’로 변경해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정식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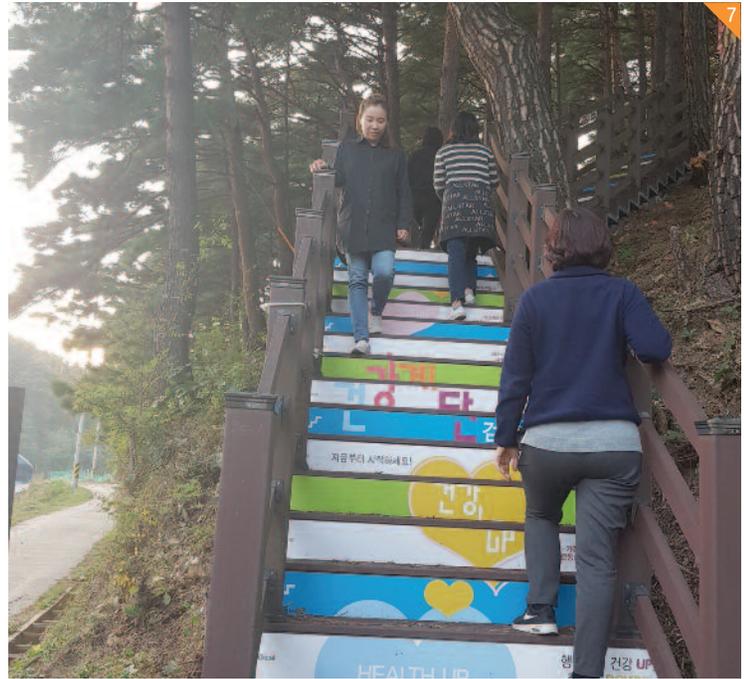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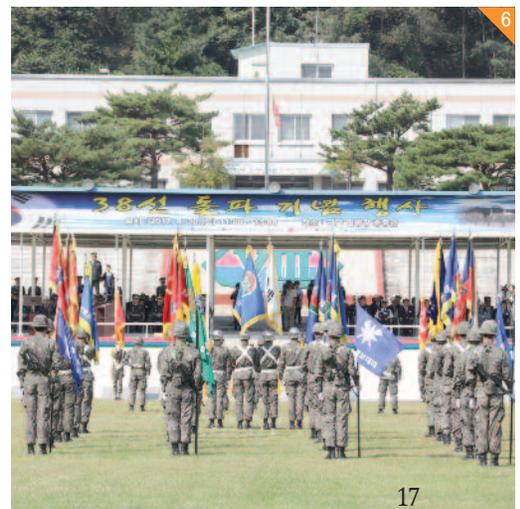
고속도로 시설물 명칭 부여기준에 따르면 나들목 분기점에는 출입시설 소재지의 지자체 명칭과 읍면동 명칭, 인지도 높은 주요시설, 동서남북 등 방향과 지자체명의 조합 등을 부여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에 대해 시설물 설치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며, 명칭변경 재심의를 통해 지난 6월 ‘남양양 IC’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우리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군은 11월말까지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협의를 통해 톨게이트 간판과 도로 표지판, 노면표지 등 시설물 공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남양양 IC’라는 새로운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남IC 나들목 명칭변경을 통해 양양 IC를 기준으로 강현면에 북양양 IC, 서면에 서양양 IC, 현남면에 남양양 IC 등 지역으로 진입하는 모든 관문에 지자체명을 담아 양양이라는 브랜드와 지역적 가치를 강조할 수 있게 됐다.

문의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담당(670-2760)



📷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 1 '17. 10. 24.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상운돌 방문
- 2 '17. 9. 28. 현남면 이장협의회·새마을부녀회 추석맞이 군부대 위문실시
- 3 '17. 10. 18.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양양수채화동호회 회원전
- 4 '17. 10. 18. 위대한 노인 활기찬 백세시대. 제14회 양양 노인대학 졸업식을 축하합니다.
- 5 '17. 10. 19. 전국 소리꾼들이 모였다. 제7회 동구리 전통민요경창대회
- 6 '17. 9. 30. "충성!!" 38선 돌파 기념행사
- 7 운동하기 좋은 날씨~! 모노골 건강계단 오르세요~



제22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및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양양군의회는 10월 23일 제22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였다.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에는 익명으로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가능하오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정례회 등 회기가 실시되면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를 통해 실시간 IP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으니 많이 청취해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산배 품평회 시상식 및 개관식

이기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지난 9월 29일 실시된 2017년도 양양송이축제 기념 낙산배 품평회 시상식 및 개관식에 참석하여 낙산배 품질 우수 농가에 대한 시상 및 농가 주민들을 격려하고 낙산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낙산배 농가들과 시간을 가졌다.



우리군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진천군의회 연어축제 견학

2016년 1월 13일자로 자매결연협약을 맺은 충북 진천군의회 안재덕 의장 및 의원들이 양양연어축제 축하 및 견학을 위해 양양군의회를 방문 의원님들과 환담하고 연어축제장 견학 및 연어맨손잡이 행사장을 방문 현장체험도 하는 등 양의회간 상호협력 및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Tel.033-670-2801



이장통신

우리 마을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마을이장님!
 이장님을 통해 마을 소식을 듣고 주민들과 공유하는 코너, 이장통신.
 우리마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손양면 가평리 (신병선 이장님)~

연어축제 연어손질 부스 운영



연어축제때 가평리마을회 부스에 줄이 아주 길던데 힘드셨지요?

아이고~몸이야 많이 힘들지만 마음은 아주 즐겁습니다. 우리가평리마을회에서 연어축제때마다 나가서 연어맨손잡이체험 후 잡은연어를 손질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 체험이 2~4회가 있어서 오전 오후 쉴 시간 없이 연어 손질로 바빠서 연어축제 4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네요~!

네~!저도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줄이 너무 길고 설움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모두 웃는 얼굴로 체험객들을 맞이해 주시더라고요~가평리마을회 덕분에 연어축제 더욱 즐거운 축제가 되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또 부탁드릴게요~^^

걱정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어를 손질했는지 물고기만 보면 손질하게 된다니까요~하하하~ 내년 연어축제가 또 뵈게요~!!



현남면 지경리 (이종민 이장님)~

우리마을에서 연어등을 만들었어요

이번 연어축제때 연어섬이 아주 인기였는데요~
 연어섬이 지경리어르신들 솜씨였군요.

네~우리 지경리마을 어르신들이 등불아트를 직접 배워서 한지로 연어등을 만들어 연어섬을 지경리가 꾸미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활동이라서 한지, 가위, 풀 모두 어색 했지만, 우리 지경마을어르신들이 눈뜨면 제일먼저 마을회관으로 모여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배접하고 색칠하여 멋진 한지 연어등을 얻었습니다.



정말 솜씨가 대단세요~!

연어 한지등으로 장식된 연어섬에 아이들의 꿈을 담은 소원등을 달면서 연어섬이 꿈과 희망의 섬이 되었습니다.

이번 연어축제에 큰 의미를 불어 넣어주신 현남면 지경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기(이게) 최고자니!



**가을 환절기 대비
양양 '피도라지 배즙'으로 건강챙기세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인 환절기에는 유난히 잔병치레가 심합니다. 우리몸이 아침, 저녁 큰 일교차에 적응하며 몸속 장기가 부담을 느끼게 되어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인데 특히 노약자나 임산부 어린이는 환절기 감기나 비염 등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양양의 대표적인 과일인 배, 수분이 많아서 이노작용을 돕고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몸에 쌓인 독소나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배출되게 도와줍니다.

양양의 해풍과 설악산의 맑은물 신선한 공기의 청정한 환경에서 키워내서 당도가 높고 깨끗한 양양배는 조선 성종조때에는 재래종 황살리 품종이 낙산사 주변에 재배되면서 조정에 진상될 정도로 맛이 좋아 주요 과수로 지정되어 낙산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도라지는 풍부한 갈슘과 섬유질, 철분,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중 사포닌성분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기침이나 가래를 가라 앉히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부터 찹떡 궁합으로 알려져 있는 이 좋은 배와 도라지를 85:15로 즙을 내어 만든 양양피도라지배즙!

기관지에 GOOD! 소화에 도움을 주는 배즙

목, 코 등 기관지에 좋으며, 배에 풍부한 루테올리, 섬유질은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해서 기침 가래를 멎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수분 부족형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소화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 과일입니다.



기침 뚫~!!

임산부나 어린아이들의 경우 감기가 걸려도 약먹기가 꺼려진다. 보통 이런 경우 배를 달여서 꿀을 넣어 먹는데, 매번하기에는 번거로운 작업이다. 매일 한봉 피도라지 배즙을 챙겨먹어보자~! 기침 가래를 삭혀주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갈증음료로도 최고인 배즙

야외 활동시 배즙을 챙겨나가 음료로 복용하는것도 좋습니다. 미세먼지에 좋은 음료로 갈증을 풀어주는데 탁월하여 과음한 다음날이나 운동 및 야외 활동 후 갈증을 해소해줍니다. 팩으로 포장되어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보관하기 쉬운 양양피도라지배즙! 선물하기에도 부담없는 양양피도라지배즙~! 냉장고에 채워놓고 가을부터 겨울까지 우리가족 건강을 챙기세요~!



구매처 : 양양몰(<http://www.yangyangmall.co.kr>) ☎670-2704

내 마음에 물든 고운 빛깔이 네 마음도 물들이는 가을로



무심코 길을 걷다 발아래에 나부끼는 단풍잎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가을이 가기 전에 열린 고운 풍경을 보러 오라며 어디선가 날아온 초대장 같았다.
나뭇잎만 굴러가도 불이 발개지도록 까르르 웃던 여고시절 동창들이 떠올랐다.
단풍철이라 산행하기 좋은 계절이니 오랜만에 연락해서 가을 나들이를 가보자고 할까?



알록달록한 비단길 따라 구룡령 옛길

옛길이라는 이름은 왠지 정겹게 들린다. 그 길만이 갖는 따스하고 한적한 정취가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기 때문이다. 구룡령 옛길은 한때 영동과 영서를 잇는 주요 교역로였다. 산세가 험하지 않아 많은 상인들이 이 길을 넘나들며 물건을 맞바꾸기도 했다고 해서 '바꾸미길'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지금은 자연 속에서 여유를 만끽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트래킹 코스로, 가을이면 알록달록 고운 단풍이 들어 절경을 이루어내는 명승지가 되었다. 구룡령 옛길을 따라 걷다 보면 묘반쟁이, 횃돌반쟁이, 솔반쟁이 등 재미있는 이름을 만나게 된다. 반쟁이는 거리의 반을 뜻하는 반정(半程)의 강원도 사투리로 거기에 갖든 이야기를 미리 듣고 걸으면 더욱 흥미로운 시간이 된다.

TIP

구룡령 옛길 트래킹 코스 안내 : 구룡령 정상→구룡령 옛길 정상→횃돌반쟁이→솔반쟁이→묘반쟁이→구룡령 옛길 입구(갈천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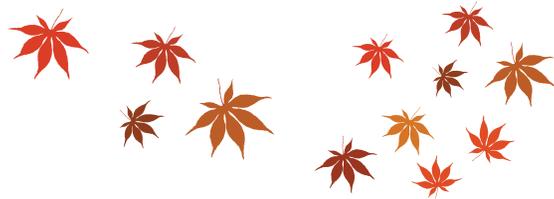


호젓하게 즐기는 가을 산책 갈천등산로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곳으로 갈천등산로를 따라 가볍게 산책하듯이 갈천약수터까지 걷는 코스도 있다. 경사 없이 거의 평탄한 길이라 천천히 주위 풍광을 음미하며 걷기 좋다. 복잡한 생각을 툭 내려놓고 걷다 보면 고즈넉하고 소박한 길의 풍광이 마음으로 스며든다. 머리 위로 색종이를 잘라 붙인 듯 선명한 빛깔을 뽐내는 단풍들이 한들거리고, 발아래로 깔린 낙엽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경쾌함을 더한다. 운이 좋으면 느긋하게 망중한을 즐기는 다람쥐도 만날 수 있다. 길을 걷다가 잠시 숨을 고르며 청량한 계곡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누군가 쌓아올린 작은 돌탑 위에 내 소망을 담은 돌 하나 얹어보는 소소한 재미를 느끼며 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덧 갈천약수터에 이르게 된다.

TIP

갈천약수터에서 조금 더 걸어서 정상에 향해 올라가다보면 2~300년 된 금강소나무 군락을 만나게 됩니다. 1989년 경북궁 복원 당시 잘려나간 금강소나무의 밑동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산행으로 지친 몸에 활력을 갈천약수&토종닭 백숙

탄산과 함께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 갈천약수는 빈혈, 위산과다, 충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갈천약수를 그대로 마시기 좀 어렵다면 요리의 재료로 색 다르게 즐길 수 있다. 특히 갈천약수로 삶은 토종닭 백숙은 별미 중 별미이다. 약수가 닭고기의 잡냄새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더욱 부드러운 육질을 즐길 수 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한약재와 어우러져 말 그대로 약이 되는 음식이다. 백숙은 보통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기는 요리이지만 가을철 산행 후 맛보는 닭백숙은 지친 심신을 북돋워준다. 쌀쌀해진 날씨에 산행을 즐기고 뜨끈한 백숙과 닭죽을 먹고 나면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TIP

갈천약수는 철, 망간, 중발잔류물 등이 일반 샘터 수질 기준을 넘기 때문에 하루 1리터 이상의 음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책 이야기

아름다움을 보는 눈, 안목을 높여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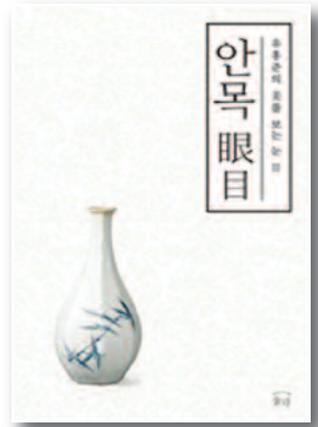
어떤이는 어진 마음의 본바탕이라고 했고, 또 어떤이는 체운을 넣었다고 했으며, 또 다른이는 세상의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눈 빛을 닮은 순백의 미, 곡선이 그려낸 균형감, 성형이 어렵지만 조선에서만 만들 수 있는 대표적 자기인 '달항아리'를 보고 혜곡 최순우 선생, 수화 김환기 화백 그리고 영화 007 시리즈의 마담M 역할을 했던 배우 주디 덴치가 남긴 말입니다. 안목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을 말합니다. 분별하는 견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눈에 대한 순간의 궁금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책에서는 '문화보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신념이기도 하고, 위창 오세창 선생이 강조했던 이말에서 그 의미를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조선에서 청나라로 다시 조선으로, 그리고 일본으로 갔던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를 불굴의 투지로 되찾아온 손재형 선생, 일제 강점기 문화재의 일본 반출을 막기 위해 전 재산을 바쳤던 조선 제일의 부자 간송 전형필 선생 등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자랑스러워하는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의 실체는 없었을 것으로, 이 책에서는 '안목'이라는 말로 전하고 있으니깐요. 저자는 이 책에서 '안목은 꼭 미를 보는 눈에만 국한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을 보는 눈 모두에 해당한다. 그래도 안목의 본령은 역시 예술을 보는 눈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미술사 입장에서 안목의 본령은 예술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 안목에서는 시대와 인간, 그리고 사랑한 작품을 휴머니즘 관점에서 차분하게 풀어가면서

안목(眼目)/ 유홍준 지음/ 놀와



더불어 읽으면 좋은[冊]

- 시장으로 나간 조선백자
박은숙 지음, 역사비평사, 2016
- 박물관 보는 법
황윤 지음, 유유, 2015
-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서울편)
유홍준 지음, 창비, 2017

독자들에게 어떤 안목이 어떤 작품을 세상으로 이끌어냈는가를 조용히 알려줍니다.

책은 읽는이로 하여금 지식을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지식과 더불어 소망까지 준다면 이는 고마움 이상이 됩니다. 무엇이든 빨리 변하고 빨리 가는 세상에서 그 전반을 심도있게 살필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필요한 지혜를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향한 발걸음으로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벼루를 갈다보니 구멍이 났듯, 문화유산을 보면서 우리의 안목도 것처럼 모르는 사이 자라날 터이기 때문입니다.

(양양교육도서관 사서 황언중)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일단 오늘은 나한테 잘합시다

도대체 지음/예담/2017

우리들은 늘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게 아닌데 뽀족한 수가 없다 자주 말하지만 그건 농담일뿐 실재는 이겨나가 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혹시, 어쩌면 나에게도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다는 '희망'이 아닐까요?



산골 소녀와 노신사

박윤규 지음, 이준선 그림/별숲/2017

고향이란 무엇일까요? 요즘 아이들은 고향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고향이란 명절 때 잠깐 스치듯 지나가는 것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이 동화는 해외에서 살던 노신사가 60년만에 고향으로 돌아가 어린시절 자신과 만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고향은 단순한 기억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알려주는 가슴 따뜻한 동화입니다.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10월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도시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월 추천 일자리

양양군 여성회관 2층
TEL. 033)670-2890~3
FAX. 033)670-2456

| 사업장명 | 인원 | 모집직종 | 근무시간 | 급 여 |
|-------------------------|----|-----------------------|-----------------------|--------------|
| 오션벨리리조트 | 1명 | 프론트사무원 | 교대근무 | 월240만원 |
| | 1명 | 시설 유지보수 | 교대근무 | 월200만원 |
| 낙산스위트호텔 | 1명 | 조리사(주방장) | 1일8시간 | 연3,000만원 |
| 장유종합건설(주) 양양국제공항호텔 | 2명 | 객실청소원 | 09:00~18:00 | 월160만원 |
| 노인요양원 성산사랑마을 | 1명 | 요양보호사 | 24시간근무후 2일휴무 | 월161만원 |
| (주)한샘개발 낙산비치호텔 | 1명 | 세탁원 | 09:00~18:00 (격주5일) | 월150만원 이상 |
| | 1명 | 하우스키퍼 | 08:00~18:00 (격주5일) | 월250만원 |
| | 1명 | 미화원 | 08:00~17:00 (격주5일) | 월150만원 이상 |
| 서울시니어스타워(주) 오색그린아드호텔 | 1명 | 회계사무원 | 09:00~18:00 (주6일) | 월180만원 이상 |
| | 2명 | 프론트사무원 (팀장1명,클락1명) | 3교대 (주6일) | 월180만원 이상 |
| | 1명 | 하우스키퍼 | 09:00~18:00 (주6일) | 월180만원 이상 |
| 진양산업 | 1명 | 홍게가공 생산직 | 08:00~17:00 (주5일) | 월180만원 이상 |
| 강릉최가두부 | 1명 | 배송 및 생산직 | 07:00~16:00 (주6일) | 월180만원 |
| 골든버치 합비식당 | 1명 | 주방보조원 | 2교대 (시간협의) | 월170만원 |

| 사업장명 | 인원 | 모집직종 | 근무시간 | 급 여 |
|-----------|----|-------|--------------------------|----------------|
| 낙산요양원 | 1명 | 간호사 | 주40시간 09:00~18:00 | 협의 |
| | 1명 |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3교대근무 | |
| 대흥반점 | 1명 | 출서빙원 | 근무일 협의 17:00~21:00 | 시급 7.5천원 |
| 베리트렌션 | 1명 | 룸메이드 | 주2일(주말근무) 09:30~16:00 | 일급 8만원 |
| 설악산밀봉원 | 1명 | 포장원 | 주2일 09:00~18:00 | 일급 6만5천원 |
| 이슬어린이집 | 1명 | 조리사 | 주5일 09:00~16:00 | 월 135만원 이 상 |
| (주)골든에스앤씨 | 1명 | 웨이트리스 | 2교대 6시~15시/11시~20시 | 월 200만원 |
| | 4명 | 룸메이드 | 주6일 08:00~18:00 | |
| | 1명 | 조리보조원 | 2교대 6시~15시/11시~20시 | |
| 하디어린이집 | 1명 | 조리사 | 주5일 09:00~16:00 | 월 135만원 이상 |
| 휴휴암 쉼터 | 1명 | 주방보조원 | 주6일 08:00~16:00 | 월 150만원 |
| 희망실버하우스 | 1명 |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 월 170만원 |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양양-제주 10월, 11월 스케줄 안내

■ 11월 운항스케줄은 10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0월 | 양양발 13:20 | 양양발 13:30 | 양양발 14:40 | 양양발 14:00 | 양양발 14:00 | 양양발 11:10 | 양양발 13:20 |
| | 제주발 15:35 | 제주발 16:05 | 제주발 17:00 | 제주발 16:00 | 제주발 16:30 | 제주발 13:35 | 제주발 15:35 |
| 11월 | 양양발 08:50 | 양양발 13:30 | 양양발 14:40 | 양양발 13:30 | 양양발 16:10 | 양양발 10:40 | 양양발 14:40 |
| | 제주발 11:10 | 제주발 15:30 | 제주발 16:35 | 제주발 16:35 | 제주발 18:05 | 제주발 12:35 | 제주발 16:35 |

■ 운항스케줄은 항공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약 : 인터넷 및 전화예약 가능합니다.

예약 및 문의 1588-2682 (이륙빨리)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



1366이란?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며,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전화통화에 의한 초기상담 현장출동과 긴급보호를 실시하며, 전문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 법률, 경찰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원스탑 보호망으로 전국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내용:**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상담 등 관련 상담소 안내 및 연계

☐ **상담시간:** 1년 365일 24시간

☐ **상담방법:** 전화, 내방, 방문, 사이버(홈페이지, NAVER 지식iN)

☐ **기타사항:** 친목모임, 소규모 그룹의 가정폭력 초기예방교육 진행,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 **위치:**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528 3층

☐ **상담전화:** 033-1366

☐ **홈페이지:** <http://www.1366.or.kr>

☐ **후원문의:** 033-252-4041 / 농협 203-01-511052(강원여성1366)

-한 사람은 온 세상보다 소중한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18나눔캠페인



☐ **명칭:** '희망2018나눔캠페인'

☐ **기간:** 2017. 11. 20(월) ~ 2018. 1. 31(일) (73일간)

☐ **모금계좌:** 농협 203-01-448497(예금주: 강원공동모금회)

양양군민 진료 협력병원안내

○ 경희 의료원

☐ **우대대상:** 양양군민, 양양군 출신 향우

☐ **진료비 및 편의제공 내용**

- 동서건강증진센터 기본검진 20%

- 비급여 감면

· 선택진료비(특진비/외래입원) 10% (1회상한 50만원까지)

· 의대병원 : 비급여 일부 10%(MRI, 초음파, 로봇수술)

· 치과병원 : 비급여 일부 10%

(양약수술 입원시 비급여 본인부담금, 미백시술료)

· 한방병원 : 비급여 일부 15%(한약, 침 - 일부품목제외)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40% (빈소 및 안치실에 한함) - 상조 가입시 제외

※ 전산자동화로 양양군 주소인식 후에는 협약에

따른 감면내용 자동 적용됨 (단, 양양군 향우 분들은 창구 확인 필요)

☐ **등록안내** (우대혜택은 등록 후 적용, 소급적용 불가)

- 등록창구 : 경희의료원 서관1층 진료협력센터(700번)

- 구비서류 : 우대 대상 확인 가능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 의 : 교류협력실 교류협력팀 (Tel 02-958-2997,8)

○ 일산백병원(인제대학교)

☐ **우대대상:** 양양군민

☐ **진료비 및 편의제공 내용**

- 선택진료비 20% - 비급여(일부) 10% {MRI, sono(초음파)}

- 종합검진비 10% - 입원시 병실 우선 배정 등 필요시 별도 협의

※ 국가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등록안내** (우대혜택은 등록 후 적용, 소급적용 불가)

- 등록창구 : 일산백병원 원무부 수납창구

- 구비서류 : 신분증, 진료의뢰서 발급(기관확인)

- 문 의 : 원무부(Tel 031-910-7456) 총무부(Tel 031-910-7515)

양양군(Tel 033-670-2213)

7080 낭만콘서트

☐ **일시:** 2017년 11월 24일(금) 19시~

☐ **장소:**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공연장

☐ **출연진:** 여행스케치, 녹색시대(곽창선), 오예중(히든싱어 장윤정편 우승자)

☐ **문의:**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033-670-2453

2018년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국비지원]

교육생 모집

'17. 9. 1 ~ '18. 3. 31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8년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교육생을 예비 모집합니다.

☐ **객실관리전문(호텔룸메이드)과정**

- 기입맞춤형과정으로 100% 취업

모집과정

☐ **길거리음식창업과정**

- 푸드트럭/핑거푸드 창업

☐ **조형놀이토탈공예지도사과정**

- 인형극, 클레이활동 등 토탈공예의 전문 교수법

참여대상

미취업여성 누구나 (제외 : 고용보험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교육일정

2018년 상반기 중

신청방법

방문접수

제출서류

사진 1매, 신분증 지참

자부담금

10만원 (수료시 5만원/6개월 내 취창업시 5만원 환급 / 단, 취약계층 제외)

교육특전

월 5만원 교통비 지원, 사후관리서비스 지원

※ 본 과정은 여성가족부 미승인시 취소됩니다.



여성취업전문기관 / 양양군직영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670-2890~3

상수도 요금 인상 안내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군민께 부담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군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생산원가 대비 52.75%로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요금체계를 지속하여 왔으나 노후상수관망 정비 등 생산원가의 증가로 부득이하게 2017년 1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민께 남대천 생명수를 1급수로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시기는 2017년 11월 고지분 부터 2년간 17.1% 인상됩니다. (1차:2017.11. / 2차:2018.11.)

가정용의 경우 상수도요금 추가부담액은 한달 10㎡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2017년 11월부터는 종전 5,030원에서 5,730원 으로 700원이 인상 되며, 2018년 11월에는 6,530원으로 800원 인상됩니다.

| 업종 | 사용단계별 (㎡) | 현 행 | 17년11월 | 18년11월 | 업종 | 사용단계별 (㎡) | 현 행 | 17년11월 | 18년11월 |
|----------|-------------|-------|--------|--------|-------|-------------|-------|--------|--------|
| | | | 고지분부터 | 고지분부터 | | | | 고지분부터 | 고지분부터 |
| 가정용 | 1~20 | 460 | 530 | 610 | 에 단 계 | 1~100 | 1,080 | 1,240 | 1,390 |
| | 21~30 | 640 | 750 | 880 | | 101~300 | 1,320 | 1,530 | 1,760 |
| | 31이상 | 1,120 | 1,350 | 1,630 | | 301~1,000 | 1,400 | 1,640 | 1,910 |
| 대중 탕용 | 1~1,000 | 1,350 | 1,580 | 1,850 | | 1,001~2,000 | 1,530 | 1,810 | 2,140 |
| | 1,001~1,500 | 1,720 | 2,020 | 2,360 | | 2,001이상 | 1,990 | 2,370 | 2,880 |
| | 1,501~2,000 | 1,890 | 2,200 | 2,590 | | 전 업 종 | ㎡당 | 740 | 870 |
| | 2,001 이상 | 3,410 | 3,990 | 4,670 | | | | | |

문의 및 상담 : 양양군 상수도사업소 ☎ 670-2567, 2574, 2432, 2382

양 양 군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를 금연입니다

2017년 12월 3일 나를 위해, 모두를 위해 실내체육시설 금연

간접흡연 예방 및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금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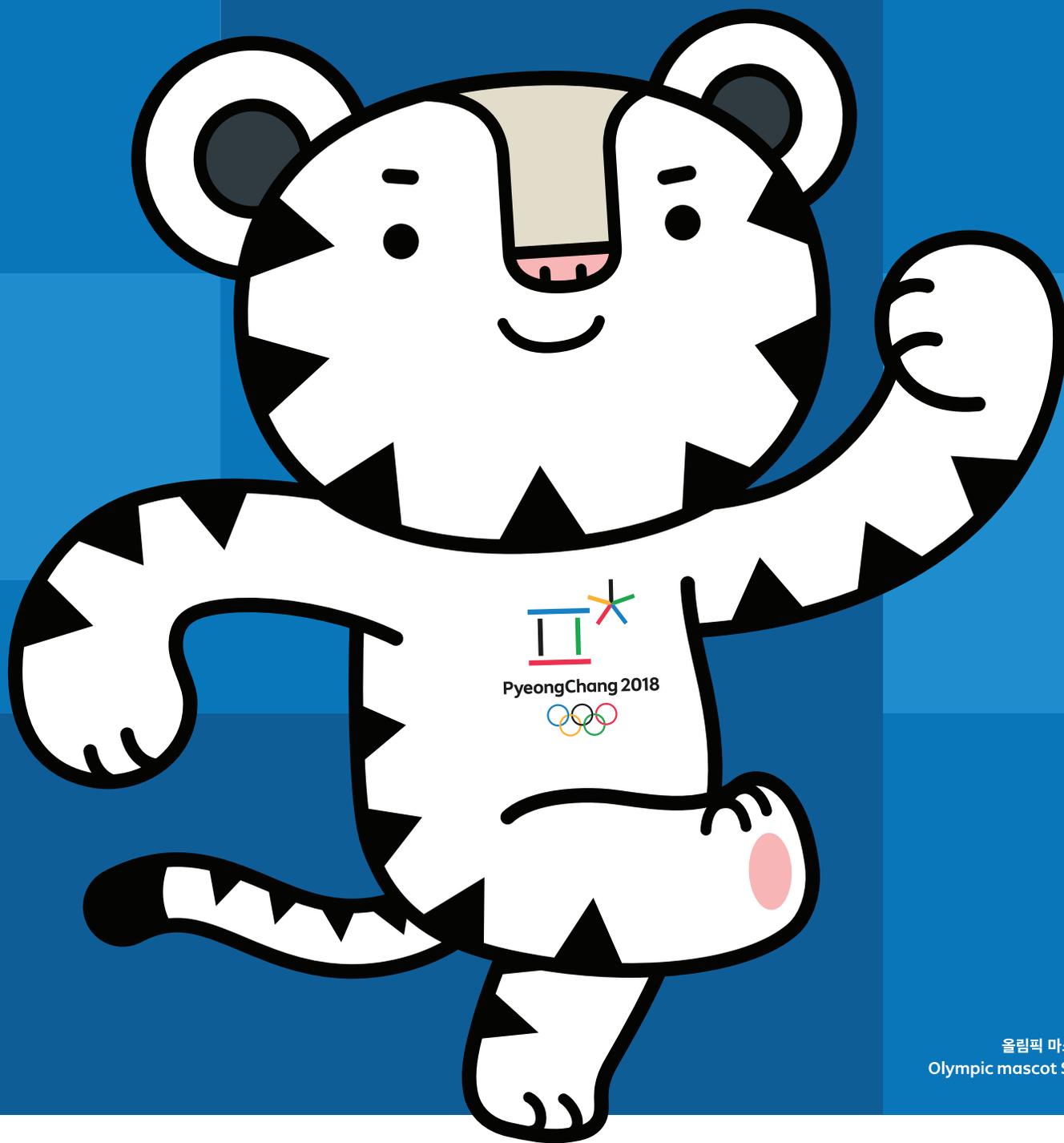


음식의 맛을 살리는
소금처럼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
정치희망이 됩니다

정치후원금센터
give.go.kr

Passion.Connected.

하나된 열정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Olympic mascot Soohorang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도시 | 평창, 정선, 강릉

2018년 2월 그 순간,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2.9-2.25

Venues | PyeongChang, Jeongseon, Gangneung

Get your tickets and share the passion
www.PyeongChang2018.com